

# 가협과 같이 한 나의 인생



원 종 익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회장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소중한 인연을 맺고 함께 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강원도 주민들을 내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하나 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강원도 주민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협회와 맺은 소중한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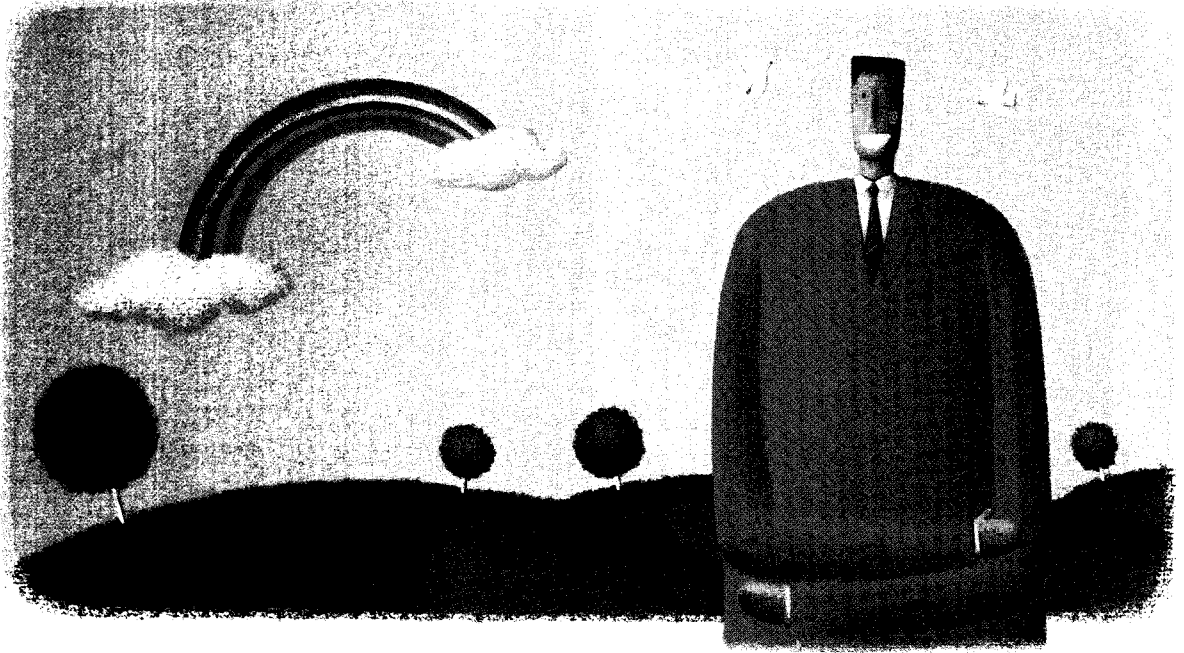
가협과 나의 인연은 1970년도에 입사하여 1995년까지 25년을 근무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황성군, 원주시, 홍천군에서 주재간사로 활동하면서 가족계획사업 초창기 어머니회 지도, 지역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 원거리 이동홍보 시술반 운영, 겨울철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많은 주민들과 만나면서 보람도 느끼고 어려움도 있었던 일들도 많았는데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억이 아련하다.

가협을 떠나 강원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평소의 꿈을 펼치고자 정치에 입문하여 제 4,5,6대 강원도의회 도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7년 강원도지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면서 다시 가협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04년 2월 강원도지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회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현재 가협의 사업은 출산억제 정책 사업에서 생식보건사업 및 출산안정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 및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 의식변화 등 많은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사업을 성공하게 하였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서는 도민의 가족보건복지증진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내 저소득층 여성의 모자보건향상을 위한 이동검진사업, 5대 암 검진사업,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성인병 검진 사업, 원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 암 검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내 가족처럼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지회의 직원들은 지역적 특성상 대부분의 출장시 새벽에 출장을 나가야 하고, 장거리 출장은 45일이어서 매우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가족처럼 환자를 대하는 직원들을 볼 때 매우 감사한 마음뿐이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지회가 도민의 가족보건향상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금년은 우리지회의 숙원사업인 청사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신청사에서 최신 의료장비와 양질의 서비스로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필자는 강원도지회 회장으로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경의를 보내며 도민의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지회가 2004년도 사업추진은 물론 2005년에는 더욱 건실한 지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